

임오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23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곳 선원에서 개최됐다. 다음은 조계종 중흥법전스님을 비롯 조계, 영축, 덕숭 총림 법전스님과 태고총림 선암사 중앙선원장의 해제법문을 간추린 것이다.

“하늘과 땅 비취 사방팔방이 영롱”

하안거 해제법어

법전 스님

해인총림 방장



(상략) 취암 영참(靈巖 永參) 선사께서 하안거 해제 날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안거가 시작된 이후로 여러분을 위해 서툰 법문 늘어놓았는데 그래도 이 취암의 눈썹이 남아 있느냐?” 이 말을 듣고서 종전 보복(從展 保福) 스님이 말했습니다. “작적인심허(作賊人心虛)라. 도둑질하는 놈은 늘 근심이지.” 그러자 장경 혜봉(長慶 慧後)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야(生也)라. 눈썹이 남지 않기는 커녕 자꾸 자라고 있군.” 이에 운문문언(雲門 文晏)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관(關)이라! 관문이다.” (종략) 이 말을 부절하게 알아차린다면 고인들이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자의 밥을 빼앗는 솜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긴 눈썹에 빛나는 눈동자로다

이제 해제 일을 맞이하여 만행 길에 나서는 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승이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종략) 보복 스님께서 ‘도둑질 하는 놈은 늘 근심한다’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썹이 자라고 있다 말했겠습니까? (종략)

운문스님이 ‘관문이다’라고 한 것은 침으로 기록한 말입니다. 하지만 참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지입니다. (종략) 그 선사들께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뜻은 결코 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밝은 남자라면 설사 해제를 하여 만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비추어볼 수 있는 솜씨가 있어 그 자리에서 사방팔방으로 영롱할 것입니다. 보복운문야(保福雲門也)여 수비귀순(匪鼻欺順)이로다. 취암장경야(靈巖長慶也)여 수미영안(脣眉映眼)이로다. 보복과 운문야! 늘어진 코와 속이는 입술이요 취암과 장경야! 긴 눈썹에 빛나는 눈동자로다.

원담 스님

덕숭총림 방장



(상략) 한 주먹에 태산(太山)을 쳐부수고, 한 입에 서강수(西江水)를 마시네 천봉만학(千峰萬壑) 빈골이 없고, 뚜렛이 크게 비어 마실 것도 밧을 것도 없네. 삼세(三世)가 오직 마음이요, 오직 이 마음이 삼세(三世)로다. 마음은 만법(萬法)의 근본(根本)이요, 만법(萬法)은 한 마음에 통하며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고, 법에 다른 법이 없어 곳곳이 비어 통한다.

크게 비어 밧을 것·마실 것 없네

마음은 체(體)가 맑고, 물들고, 동(動)하고, 고요함이 들어 아니며 그 광연(曠然)함은 태허(太虛)와 같다. 형상 없는 몸속에 형상 없는 몸으로 무명의 길 위에 생멸(生滅) 없는 길이어서 곳곳마다 광명이며 곳곳마다 법신(法身)이라. 공겁이전(空劫已前) 한 덩어리 달빛이요, 천지미분전(天地未分前) 눈에 아득한 빛이라. 한 날 거품의 환(幻)이 한가지로 걸림이 없다. 이 마음은 유심(有心)으로 알 수 없고 무심(無心)으로도 알 수 없다 하니 또한 무엇으로 알 수 있겠고!

지허 스님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금이나 옥반지가 아무리 집에 가득해도, 나를 구해줄 본래 보배는 아니니라 세세생생 나를 따라 다니는 보배는, 참선하는 한 생각이 진실한 것 뿐 이로다. (종략) 육조혜능 선사의 손제자인 마조 도일선사(馬祖 道一禪師)의 회상에서 마조조실 스님이 세 사람의 수행자를 데리고 포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기 그지없는 절집산중(寂山)에 휘영청한 보름달이 떠서 마치 천지가 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경에 취한 조실스님이 뒤를 돌아 보며 “이런 때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수행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참선 한 생각 진실한 것이 보배

맨 앞서 걸면 신라의 서당지장(西堂地藏) 스님이 대답하기를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 가련 백장회해(百丈懷海) 스님은 “선방으로 돌아가 공부해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마지막 가련 남천보원(南泉普願) 스님은 말없이 두 손을 저으며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마조조실스님이 말하기를 “교는 서당이 가져가고, 선은 백장이 가져갔는데, 보원만이 오직 홀로 출격 대장부로우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출격 대장부리야 만이 불불살불(佛殺佛)할 수 있고 불조살조(佛殺佛)할 수 있으며, 반야심경에 무(無)애(愛)무(無)애(愛)무(無)애(愛)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해제 대중들이여! 우리도 해제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계에 있어도 마조회상의 달빛놀이와 같이 모든 경계속에 보원 스님처럼 한 생각이 진실해져서, 천하의 출격장부가 되어 선방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해제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보성 스님

조계총림 방장



오늘 해제 법문에는 삼세제를 역대조사가 가장 중요시한 ‘죽을 死(사)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라시대 부설거사는 ‘설사 법문을 구름 피듯 비 내리듯 하고, 하늘에서 꽃 비 내리고 돌이 고개를 끄덕여도, 정력 없는 지혜는 생사를 면할 수 없으니, 생각하면 쓸데없는 허망한 일일세’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선지식으로 대접 받고 이는 것이 많아도 죽을 때 임종일념(臨終一念)을 매(快)한다면 일생수행이 반분(半分)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열불해도 임종일념을 매하여 십념미다(十念彌陀)를 못 하면 극락세계상품왕생(極樂世界上品往生)은 안된다고 하였고 선사도 임종시에 좌탈입망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도송보다도 임종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일본 조원(祖元) 선사는 이런 임종계를 남겼다.

못 깨친 범부 해제 어찌 있겠는가

부처님 범부니 하는 것은 빈이름인데 그 가운데 실상을 찾는다면 눈 속의 먼지일세. 내 사리는 하늘땅을 뒤덮었으니 빈상을 향해서 식은 재를 뒤지지 말게. 고인의 말씀에 사리방광(舍利放光)이 여불(佛)로 무이(無異)라도 바른 안목이 없다면 박지범부(博地凡夫)라고 하였다. 깨치지 못한 우리 범부분상(凡夫分上)에 어찌 해제가 있겠는가? 각자가 견성하여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바로 해제 날 이니라. (하략)

월하 스님

영축총림 방장



한 조각 비고 밝은 것 본래 동글고 묘해, 유심(有心) 무심(無心)으로는 능히 알 수 없네. 겨울 가운데 형상 없는 이 마음은 곧, 확연한 허공 같아 털 끝만치라도 걸리지 않네. 대는 속이 비었고, 달은 빛이 밝다. 선원대중(禪院大眾)이여! 오늘 해제라. 비어있으면 받아들이고 차있으면 내어놓아라. 때 맞추어 열고 닫고 또 다시 밀봉하였다. 산은 그칠이 본색이요, 고요(靜)함이 본색이다. 구름은 서(西)로도 갈 수 있고, 동으로 갈 수 있다.

형상없는 이 마음, 확연한 허공

그칠과 고요함이 본색인 것은 형상이 있어 땅에 붙은 탓이지만 서로, 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마음 없이 바람을 따르는 탓이다. 청산은 백운 밖에 푸르고 푸르며, 백운은 청산 속에 회고 회다. 청산과 백운이 하나가 되면, 비로소 가슴에 의심이 없을 것이다. 들쭉는 대숲에 뛰어들어 숨는데, 놀란 노루는 숲을 찾아 달아나구나.

‘진각종 균승문제’ 타협 가능성

“위덕대 만이라도”
“만나서 얘기하자”

진각종과 위덕대의 균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 문제를 둘러싼 조계종과 진각종의 입장차가 다소 좁혀지면서 타협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본지 342호 2면 / 343호 3면 기사 참조) 진각종 효암 총리원장은 19일 위덕대학 교를 방문, 교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각종의 균승파견 종단 지장이 어렵다면 위덕대만이라도 지정되도록 하자”는 방침을 밝혔다. 진각종 내 상당수 스승(진각종에서는 성직자를 이렇게 부른다)들도 종단 지장이 무리라면 구태여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는 종단 지정과 위덕대 지정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조계종도 협상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관광부장관 초청오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진각종 일정 종사전 교육원장에게 “진각종 군법사 문제는 고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계시던 당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논산훈련소 입소대 군 법당을 진각종에서 건립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만큼 이제 조계종에서 화답할 차례”라고 말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방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회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진각종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타협 가능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군 법사 부족 문제 해소 등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위덕대의 균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두 종단의 타협 여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a.com

인생술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일지만 강력한 마음스런 여행-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사과문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1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사패산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스님들의 기도 정진 중인 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패산 터널 공사를 재개하려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중인 비구니 스님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초부터 스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자 했으나,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스님들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끼치게 된 점 유감스러운 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 8월 14일

◆ 시행사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최병권

◆ 시공사 : 엘지건설(주) 대표이사 김갑렬